

## 한국의 다문화 공간(2011, 정병호 외, 현암사) 서평

손은경\*

### 들어가며

“한국의 다문화 공간”이라는 책이 다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책꽂이에 꽂아두고 시간나면 읽어야지 했으나, 각 나라 국기로 모자이크된 키 큰 사람의 그림이 인쇄되어있는 표지의 독특함이 눈에 띈 것 외 제목은 딱딱하게 느껴지고 분명 책장이 잘 넘겨지지 않을 것 같아 슬쩍 밀어두었다. 그러다 더 이상 밀쳐두면 안 될 듯하여 펼쳤는데, 사실 책을 읽을 상황이 안 되어 접은 때 말고는 읽는 내내 흥미로웠다. 마치 어린아이가 동화책을 읽으며 서서히 기쁘고 슬픈 감정에 폭 빠지듯 다양한 이주민들의 깎박한 삶의 터, 다문화 공간들을 만나며 내내 가슴이 미어지고 무겁고 이렇듯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삶에 무심할 수 있었음에 부끄러웠고 연대하지 못했음에 미안했다.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견뎌냈고, 6·25 전쟁에서 버터낸 뒤 보리 고개를 넘어와 밥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된 줄 알았더니 급격히 변한 사회 물결에 밀려나 버거운 한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이 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땅, 곳곳에는 이러한 아픈 경험을 안고 먼 이국에서 이마에 그리움이란 줄을 골골이 새긴 후야야 조국에 기댈 수 있었던 사할린 동포들이 고향마을에 있다. 조상이 한국에 정착한 지 4세대째에 이르렀는데도 중국에

---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석사과정,

가면 한국인이요, 한국에서는 중국인이고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물음에 마음이 불편한 어정쩡한 존재감을 안고 사는 화교들이 있다. 가난한 삶을 벗어나 보고자 멀리 떠남을 선택한 수많은 이주민들의 불안과 설렘도 기대도, 그들의 취약한 환경 속에 녹아 있다.

쓸쓸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 공간 속의 사연들, 풀어야 할 문제들을 가슴에 담고 이제라도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싶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아픈 시대를 만나지 않고 평화 속에 정착하여 풋풋한 꿈을 꾸며 웃으며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싶다.

이 책은 한국학술연구재단의 2008년 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 ‘한국의 다문화 공간과 문화간 이해교육연구(KRF-2008-B00071)’의 연구 논문과 2011년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설립 기념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병호·송도영이 엮어 현암사에서 출판한 것이다.

책머리에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과의 사회문화적 공존 상황을 ‘다문화’라고 칭하는데 이는 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 출신과의 공존, 즉 ‘다민족 다문화’ 상황을 연상하며 쓰는 것이다. 이 다문화 공간은 이주민들이 공간이고 외국인, 난민, 이민, 망명자와 밀입국자의 거리이다. 만남과 이별과 애수와 허무와 환락과 퇴폐의 낭만적 정서가 만연된 이국적 공간”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다문화 공간은 식민지적 다문화 공간의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강요된 개항, 외국 군대의 주둔, 열강의 조차(租借), 선진 문물의 수입, 식민주의자의 거주, 피지배민족의 강제 이주라는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문화 접촉이 대규모로 발생한 곳”이라고 밝히며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곳이라고 진단한다.

총 2부로 구성되어 들어가는 글에서, 한국의 다문화 공간의 역사적 풍경을 이야기 하니 공간의 시발점부터 고단했던 삶을 알게 된다. 관계 안에서 아픔을 나눔은 기쁨보다 더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인지

이내 다음 장들의 내용이 궁금해진다.

제1부 “다문화공간의 발견”을 테마로, 다문화 도시 구역 사람들의 소통방식과 서울 이태원에 대한 내용, 인천 차이나타운, 안산 고향마을의 에스닉 코리안 사할린 귀환동포들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도시와 생활세계에 대한 내용 등이 펼쳐진다.

제2부 “다문화 커뮤니티의 이해”라는 테마 속에는 말도 탈도 많은 아직 길길이 먼 다문화 특구 안산 원곡동에 대한 이야기가, 다문화 공간을 둘러싼 갈등,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그리고 다른 다문화공간보다 특이한 경우인 부천의 다문화 네트워크에 대해, 또 다문화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각 부마다 다섯 가지 소제목을 통해 여러 장소들의 다양한 접근과 내용을 담은 저자들은 모두 다르다. 공간의 접근과 시각들이 달라 풍성하고, 매 장들이 다 흥미롭다.

이미 들어가는 글에서 이 책은 한국의 다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고 사는 ‘사람’과 ‘사람들’의 삶에 더욱 주목하고자 했다고 밝혔는데, 여러 사례와 생생한 인터뷰, 사진과 통계 등의 자료들은 다문화 공간의 현장감을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의 여정을 더욱 잘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그 공간의 문을 잠깐 열어보자.

#### - 이태원

임진왜란 때 서울에 진주한 일본군들이 부근의 사찰에 들어가 비구니들을 겁탈해서 잉태하게 된 아이들이 결국 이 일대 언덕에 살게 되면서 이태원이란 이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등 이 자리를 둘러싼 전설들의 특징은 외국인, 외래인들이 이태원과 연결되는 과정이 자못 비극적이라는데 있다. 그리고 외래인들의 등장이 폭력적이고, 점령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이태원이 외래인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반영하는 전설이다.

#### - 사할린 귀환동포의 디아스포라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한 대 앞 역 앞에 위치한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는 일종의 임대아파트다. 이곳 주민들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강제동원령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됐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전쟁 후 그 땅에 남게 됐고 2000년 정부의 영주귀국 정책에 의해 60여년 만에 귀국해 안산 고향마을에 정착하게 됐다.

“고향에서 떠날 때는 부모와 헤어지고 고향에 돌아오니 다시 자식들과 헤어진다.”는 말은 현재 그들의 고충을 잘 드러낸다. 또한 그들은 영주귀국 후에도 한국사회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사할린에 있을 때는 조국을 이상향으로 여기며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주력했다면 귀환이후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사할린 출신임을 강조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한다. 강제징용도 영주귀국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디아스포라’상황인 것이다.

#### - 한국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인도네시아인들이 원곡동이라는 공간에서 고향에 온 것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는 송금센터, 휴대폰가게, 국제 배송업체, 여행사처럼 고향과 접촉될 수 있는 지점들이 모여 있는 익숙한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얻는 심리적 안도감이 마치 고향에 다가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원곡동은 이들이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공간 같은 공간이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디일까? 한국? 인도네시아?

#### - 다문화 특구 원곡동

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사는 곳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특구 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들은 원곡동이 “한국영토”임을 내세

운다.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자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잠시 한국을 찾은 일시적인 체류자이며 결국은 국가를 구성하는 책임감이 있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로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토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 즉 주도권 문제와 연결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비국민에게 영역 주도권이 넘어가서 생기는 문제이며 그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민인 한국인들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인과 이주자들 사이의 갈등에서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배타적인 국민국가주의다. 한국인과 비한국인이라는 이분법에서 출발하는 배타적 국민국가주의는 한국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주자들을 싸잡아 ‘공공의 적’으로 만든다.

다문화는 기본적으로 타자 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타자에 대한 감각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윤리로 작용한다. 타자에 대한 윤리가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차별과 배제가 된다. 그리고 타자성 윤리의 긍정적인 측면은 관용과 평등이다.

### – 한국 다문화 공간의 미래

한국의 다문화 공간은 외세의 침략으로 시작되어 식민지 상황에서 확대되고 분단과 전쟁과 냉전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진화했다. 근대적 문명의 수입창구이자 다가오는 시대를 먼저 예감하는 선도적 문화 공간이기도 했으며 이제 글로벌 이주와 다문화 공존의 시대에 한국의 다문화 공간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이 사회에서 먼저 경험하는 실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주민 소수자들의 사회적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이 공간은 미래 한국사회가 마주치게 될 근본적인 과제를 드러내 보이는 ‘먼저 온 미래’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여행자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뜨내기 주변인들의 삶의 전략이 일상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험과 갈등의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하고 합의하는 논리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 마치며

왜 글로벌 다문화총서인지 알 것 같다. 좁은 영토 안에 이렇듯 많은 외국인  
인이 있는 줄은, 다문화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신  
대륙을 발견한 듯 있어 온 공간의 만남이 새로웠고 그 안의 사람들의 순탄  
치 않은 삶의 여정을 바라보며 겸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  
공간의 현실과 미래를 접하며 DMZ라는 곳, 유일한 분단국가 남과 북, 두쪽  
난 공간의 의미에 대해 묵직하게 다가왔다.

이 책은 거리에서 TV에서 종종 외국인을 만나며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를 궁금해하는 분들, 이 땅에 다문화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할 청소년들, 젊은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종사자와 공  
무원에게 특히 더 권유하고 싶다. 어렴풋이 접했던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현재 이 책의 후속으로 공동연구로 진행 중인 '한국 이주자 커뮤니티의 초  
국적 공간과 문화적 지형 연구'의 결실을 담은 글로벌다문화총서 제2권의 출  
판이 기다려진다.